한라시론

저출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오 윤 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최근 필자의 주요 관심분야는 저출생과 사회복지분야 균형발전이다. 전세계적으로 출산과 관련한 주요 지표로 합계출산율을 이용해 대체출산율과 초저출산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체출산율은 합계출산율 2.1명,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을 기록하며 40년 전부터 대체출산율을 밑돌았고, 2002년에는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해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했다. 이후 인구감소의 충격 속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약 20년간 30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끝없이 하락했다.

지난 2월 통계청은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발표했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일 때 미국 뉴욕타임즈는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감소"라고 평가했는데, 다행히 2024년 합계출산율(0.75명)은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하다가 소폭 반등했다.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저출산정책 해외사례연구(KDI, 2024)에 따르면 OECD 대부분 국가들이 2011년 대비 2021년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으나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저출생 경험 후 다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고, 현재 1.5명~1.8명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통합적 가족지원 정책 방향 수립 ▷수당 지원 정책보다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지원 중심의 재정지출 방향으로 전환 ▷육아휴직 및 기업 참여 활성화 ▷연속성 있는 보육 지원 ▷가족 개념 재정립 ▷주양육자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여기서 '수당 지원 정책보다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지원 중심의 재정지출 방향으로 전환'은 사회복지분야 균형발전과 연계된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균형발전은 기존 인프라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접근성 중심으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이 과거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의 인프라 확충에서 서비스 위주의 공급 확대·접근성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수도권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및 저출생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의 확충보다는 서비스의 공급 확대 및 접근성 개선,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 이상의 디지털 혁신시대에 살고 있다. AI 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면서 AI가 일자리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대체출산율과 초저출산국가에 대한 기준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의 가치, 저출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사설

하위권인 지역여건 개선 맞춤형 정책 필요

제주의 지역여건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교육과 주거 및 교통, 생활환경, 일자리 부문 등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제주의 지역여건 진단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2023년 균형발전지표를 토대로 10개 부문별 제주의 강·약점을 진단했다. 그 결과 제주도의 지역여건은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였다. 지역여건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는 문화·여가, 안전, 인구부문이었다. 반면 교육, 생산·분배, 생활환경 부문은 취약했다. 심지어 교육부문은 10개 부문 중 가장 취약했고,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평가됐다. 또 도민의 주관적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지표는 '일자리 기회'였고 그 다음 '소득창출'로 나타났다. 지역여건 수준과 부문별 차이도 뚜렷했다. 제주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6위를 차지했다. 물가·재정, 안전, 보건·복지, 생활환경 부문은 전국 평균 이하였다. 서귀포시는 132위로 물가·재정, 교육, 문화·여가부문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여건 진단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의 상대적 평가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생활환경 여건만큼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돼야 한다. 특히 도민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지표가 일자리 기회와 소득창출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부문은 각성해야 한다. 양 행정시의 여건수준 편차를 좁히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역여건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논의만 하다 날 샐라

제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 차원의 원탁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관련 비용 3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됐다. 용역까지 마무리됐는데 또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도의회 추경안 심사에서 절차적 문제 등이 불거졌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그제 제주도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실현 방안 원탁토론회' 운영비용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다뤘다. 앞서 제주도는 최대 8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용역을 마쳤다. 사실상 선택만 남아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탁회의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설문조사 등 용역진의 의견수렴 등과 다를 바 없다. 용역 결과를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해해달라는 게 제주도의 해명이다.

도의원들은 "모든 용역은 원탁토론을 거칠 것이냐, 돌다리만 두들기다 끝날 것이냐, 용역 과정에 미리 반영돼야 했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행정절차 문제는 물론 제주도의 추진의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고 할 수 있다. 용역 과정에서 황당한 계획이 제시되는가 하면,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타운 건립 논란 등으로 적잖은 시간을 허비했다. 의견수렴 명목의 원탁토론은 그야말로 재탕삼탕 탁상공론이다. 제주도의 자충수가 되고 있다. 자신없으면 발을 빼든가, 아니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당장 출발해야 한다.

열린마당

맑은 물처럼 청렴한 행정을 다짐하며

홍 준 기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며칠 전, 상하수도본부 청사 마당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전 직원이 함께한 이날 '청렴식수식'에서 우리는 30년 수령의 소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심었다. 파란 하늘 아래 심어진 소나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청렴의 씨앗을 심고 가꾸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우리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자세로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이 나무에 담았다. 식수를 마친 후, 소나무 옆에는 '맑은 물처럼 청렴한 행정'이라는 문구를 새긴 표지석을 세웠다. 이어서 전 직원이 한 목소리로 청렴결의문을 낭독하며, 부정청탁을 멀리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의 이익 우선을 실천할 것을 엄숙히 선언했다.

그러나 청렴은 결코 구호나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청렴을 지키려면 모든 공직자가 본분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해야 한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청렴이 조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도민의 생명수인 물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한 점의 흐림도 없이 맑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은 소나무가 앞으로도 수십 년간 푸르게 자라듯이, 우리 역시 청렴의 뿌리를 마음속 깊이 내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맡은 바를 수행해 나가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청두 직항 노선 개설 제안

오 지사, 청년 교류도 기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중국 쓰촨성을 방문해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주~청두 직항 노선 개설 등을 제안.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15일 쓰 샤오린 쓰촨성 장과의 면담에서 "현재 쓰촨성에 있는 푸바오가 한국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듯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정을 이어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

이어 "팬데믹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와 청두를 잇는 직항로가 개설된다면 제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화 관광, 경제 무역, 신재생에너지,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런케이션을 통한 청년 인재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 진선희기자

포토존도 '폭싹 속았수다'

○…1950년대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세계적인 흥행 속에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혼인신고 포토존도 이를 활용해 새롭게 단장해 눈길.

종합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들이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공유하고 있는데, 시는 이들에게 무료 사진 인화서비스도 제공해 호응.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 만큼 그 기억이 더욱 특별하게 남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새롭게 준비해 맞이하고 있다"며 "올 들어 혼인신고 접수 건수가 월평균 170건 이상인데, 100쌍 이상의 신혼부부가 포토존을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영순(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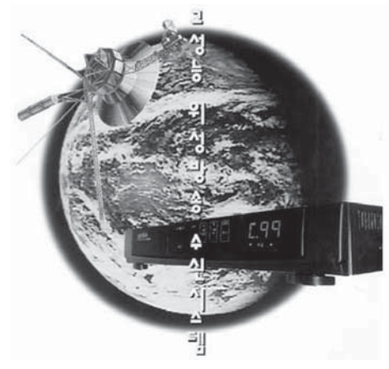
2025년 4월 17일

며느리 정태심
아 들 김유헌 고근미
딸 김유정 사 위 최절한
유영 김영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가족묘지
문중묘지
허가대행
벌초대행
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
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

● 깨끗한 환경 건강한 생활 ●
제주, 입주청소
하수구뻥, 변기교체 제초작업/벌초대행
010-4025-6424
- 입주, 이사, 거주, 부분청소 -
아파트, 빌라, 연립, 펜션, 개인주택, 식당, 상가, 학원, 사무실, 공연장 등등
줄눈시공/방충망교체/생활폐기물처리
싱크대수전교체/곰팡이제거
주거환경을 깨끗하고 산뜻하게 입주 첫 날의 그 깨끗함,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제주크린 등록번호:616-16-81361
세금계산서 발행, 카드결제 가능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